

‘문학의 계절’ 文香으로 물들다

ACC서 27일 ‘아시아문학포럼’
7개국 작가들 더 나은 미래 모색
25~27일 31주기 김남주 문학제
목포문화관, 20일 작가 북콘서트
은희경·한정현 소설가 참석



지난해 ACC에서 열린 아시아문학페스티벌에서는 아시아문학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ACC 제공)

기세등등했던 폭염도 누그러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가을이 시나브로 우리들 곁에 다가왔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자 문학의 계절이다. 밀쳐
두었던 책들을 읽거나 문학 공간을 찾아 여행을 떠
나는 이들도 있다.

2025 대한민국 문학축제(12~25일)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문학을 모티브로
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대한민국 문학축제
와 연동된 행사도 있지만, 9월 각기 문학단체나 문
학관이 주관이 돼 있는 문학 프로그램도 있다.

◇ACC서 열리는 2025 아시아문학포럼

오는 2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
욱, ACC)에서는 아시아문학포럼이 열린다.
ACC와 아시아문화교류행사운영위원회(회장 채
희운)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주제는 ‘아시아 문학
의 미래와 역동성’. 아시아 7개국 작가들이 오늘의
세계를 성찰하고 더 나은 내일을 모색하기 위해 기
회했다.

지난 세기 어두운 식민지 역사를 간직한 아시아
는 저마다 경험은 상이하지만 독립에 대한 열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추구하고 있다. 문학은 그러한
경험을 하나로 아우르고 역동적인 미래를 사유하
고 조명하는 중요한 창이기도 하다.

포럼은 3개 세션과 특별세션으로 구성돼 있다.
이해진 진행의 세션 1은 ‘RE: Asia청년을 깨우
다’를 주제로 펼쳐지며 엘빈 팡, 웅웬 옥 프, 유현
아, 황인찬 작가가 참여한다.

장은영이 진행하는 세션2의 주제는 ‘연대와 공
존의 상상력’. 거르리치무거 헤이허, 호시노 도모
유키, 손홍규, 한정현 작가가 참여하며 이들은 오
늘의 시대 연대와 공존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우리 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한 특별세션은 아동
문학에 초점을 맞췄다. 김미승의 진행으로 쉼타오,
이금이 참여해 마을 이야기가 어떻게 문학의 내일
과 상상력의 확장으로 이어지는지 모색할 계획이다.
마지막 세션 3은 ‘다시 시작하는 민주주의’를 주
제로 펼쳐지며 고명철이 진행한다. 아를람 브사라
트, 율찌투스, 김멜라, 송경동이 민주주의의 의미,
합안했던 민주주의의 역사 등을 조명할 예정이다.

김상욱 전당장은 “작가들은 현실에 가장 민감하
게 반응하는 예술가들”이라며 “이번 아시아문학포
럼은 다양한 세션을 통해 아시아 문학의 어제와 오
늘 그리고 내일의 방향성 등을 다채롭게 훑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제25회 김남주 문학제

올해는 김남주(1946~1994) 시인이 타계한지



지난해 해남에서 열린 김남주 시인 30주기 문학제 모습. (김남주기념사업회 제공)

31주년이 되는 해다. 그는 70~80년대 군사 독재정
권에 맞서 쓴 ‘전사시인’이자 울곧은 목소리로
한국문단을 일깨웠던 ‘민족시인’이다.

해남 출신인 김남주는 전남대 영문과 시절 반유
신 지하신문인 ‘합성’을 제작하는 등 반독재 투쟁
을 전개했다. 그러나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
고 이후 1974년 ‘창작과 비평’(여름호)에 ‘진혼
가’ 등을 발표하며 창작활동을 펼친다. 이후 농민
운동에도 나섰으며 1979년 ‘남민전사건’으로 체
포돼 다시 수감되기에 이른다.

올해도 김남주 문학제(25~27일)가 시인의 생
가가 있는 해남에서 열린다. 김남주기념사업회
(회장 김경운)는 해남문화원과 생가에서 인문학
콘서트, 북사인회, 결계시화전 등 다채로운 행사
를 펼친다.

먼저 25일에는 박우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철학으로 시 읽기’를 주제로 인문학 콘서트를 한
다. 김남주 시인의 작품 주제 가운데 하나인 ‘자
유’를 모티브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27일에는 고인의 생가에서 포럼콘서트가 예정
돼 있다. 한국작가회의 회원들의 시낭송을 비롯해
노래공연도 펼쳐진다. 노래패 동행과 답소의 시노
래, 가수 김원중의 초청공연도 이어진다.

체험행사도 마련돼 있다. ‘김남주 시등달기’, 전
시행사로 ‘김남주 추모 걸개시화전’, ‘김남주의 삶
과 문학전’이 펼쳐진다.

김경운 기념사업회장은 “엄혹한 시절 김남주 시
인이 온몸을 다해 외쳤던 시 정신은 세월이 흐를수
록 빛이 난다”며 “25주기 행사를 맞아 많은 이들이
참여해 시인의 불꽃같은 시혼과 삶을 느꼈으면 한
다”고 전했다.

◇목포문화관 문학나눔 작가 북콘서트
목포문화관에서는 2025문학나눔 작가 북콘서
트를 연다. 오는 20일 오후 2시에 문학관에서 펼
쳐지는 이번 북콘서트는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자기관은 이야기”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
사는 문학을 매개로 자신을 사유하고 삶의 이야기
를 함께 나누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은유 작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은
희경 소설가와 한정현 소설가가 참여한다.

문학관 관계자는 “목포문화관은 우리 한국 문학
사에 빼어난 작가들의 삶과 문학세계가 응결된 곳”
이라며 “목포문화관에서 열리는 이번 북콘서트에
관심있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상상력에 초점을 맞춘 창작에세이

수필가 오덕렬 ‘창작수필문학 개론’ 펴내



일반적인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라고
정의돼 왔다.

그러나 ‘창작수필’은 ‘창작적 진화’를 따라 쓴
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상상력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장르라는 의미다.

‘창작수필문학 개론’(풍백미디어)이 출간됐다.
수필가 오덕렬이 펴낸 이번 ‘창작수필문학 개
론’은 창작의 기본 개념은 물론 서구의 창작에세
이가 한국에 들어와 어떻게 ‘창작수필’ 문학으로
진화 발전하였는지 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영국의 찰스 램은 상상과 허구를 에세
이에 도입해 에세이의 완성자로 추앙받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고전 창작수필 ‘동명일기’(1772)는
그 평가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고전수필과 현대수필이 창작을 맺줄로 서로 연결
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책은 모두 4부 15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 창작의 밑심 ‘이것저것 놀이’, 제2부 ‘몽
테뉴에서 운오영까지’, 제3부 ‘창작의 자유·비평
의 자유’, 제4부 ‘수필시’로 나누었고, 각 부마다
15장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평생을 교직에 몸담은 교육자인 오 수필가
는 한국수필 추천으로 등단했으며 계간 ‘散文의
詩’를 통해 ‘산문의 시 평론’ 신인상을 수상했다.
수필집 ‘복만동 이야기’, ‘고향의 오월’, ‘함구네
감시다’ 등과 평론집 ‘수필의 현대문학 이론화’,
‘창작수필을 평하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내일을 향해 쏴라’ 로버트 레드퍼드 별세

할리우드 배우·감독으로 성공...환경운동가로도 기여



2002년 오스카 평생공로상을 받은 로버트 레드퍼드(왼쪽)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연합뉴스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배우이자 감독·제작자인
로버트 레드퍼드가 별세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
(NYT) 등 미국 언론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보
도했다. 향년 89세.

NYT는 홍보회사 로저스&코완 PMK의 최고
경영자(CEO) 신디 버거를 인용, 레드퍼드가 유
타주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버거는 구
체적인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1936년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태어난
고인은 콜로라도대학에 야구 장학생으로 입학했
으나 관료주의적인 학교 문화에 불만을 품고 중퇴
했고, 유럽에서 미술을 공부한 시간을 거쳐 배우
의 길에 발을 들였다.

할리우드에서 배우이자 감독으로 오랫동안 활
약한 레드퍼드는 ‘위대한 개츠비’, ‘내일을 향해
쏘라’,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콘돌’, ‘아웃
 오브 아프리카’, ‘스팅’, ‘내츄럴’, ‘업 클로즈 앤
 퍼 스틸’ 등의 영화에 출연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1985), ‘맨발의 공룡’
(1967), ‘추억’(The Way We Were-1973) 등
에서 메릴 스트리프, 제인 폰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등 당대의 유명 여배우와 함께 주연으로 출연했다.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대표작 할리우드 미남
스타 중 한 명이었던 그는 배우로서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은 물론 감독으로서 진중한 작품세계를 추
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40대에 들어 감독 활동을 병행한 그는 미국 중
상류층 가정의 해체를 다룬 감독 데뷔작 ‘보통 사
람들’(1980년)로 1981년 오스카 최우수 작품상
과 감독상 등 4개 부문에 휩쓸었다.

몬테나주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 한 개인교 목사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1992년 연출작 ‘흐르는 강
물처럼’은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

까지도 회자하는 1990년대 할리우드 명작 중 하나
로 꼽힌다. 1950년대 미국 사회를 뒤집은 퀴즈쇼
조작극을 다룬 1994년작 ‘퀴즈쇼’는 오스카 작품
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그가 영화계에 남긴 업적 중 빼놓을 수 없는 것
은 선댄스 영화제 창립자이자 이사로서 독립영화
운동을 장려한 것이다.

레드퍼드가 ‘내일을 향해 쏴라’에서 맡은 배역
인 실존 인물 ‘선댄스 키드’에서 이름을 딴 영화
제는 할리우드 시스템 바깥에서 새로운 모색을 하
는 신인 감독들의 등용문이 됐다.

영화인으로서뿐 아니라 환경운동가로도 널리
알려진 레드퍼드는 생전 약 30년간 천연자원보호
위원회의 이사로 활동했고,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
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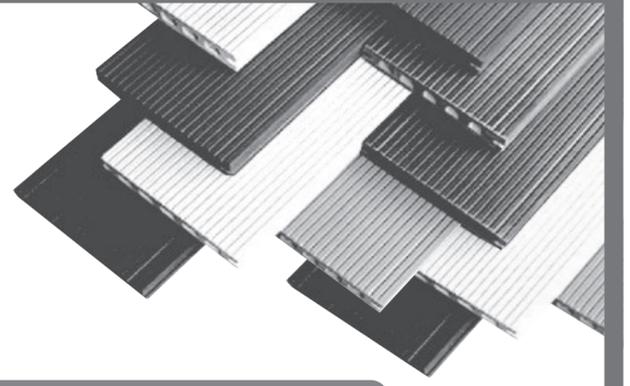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